

나주시, '인공태양 생태계' 구축 가속도

켄텍·GIST 등 5개 대학 참여 인력 양성·연구 협력 연구시설 기반 산학연 연계...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본격화하며 핵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미래 에너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 선정 이후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지역대학과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광주과학기술원(GIST), 동신대학교, 목포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5개 대학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핵융합 산업 기반 조성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핵융합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 교육과정 도입,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산학연 연계 연구 활성화,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핵융합 산업이 장기적이고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교육

과 연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넘어 정부,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로 단계적으로 확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핵융합 분야에 특화된 지역 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래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나주의 미래를 바꿀 핵심 전환점이다"며 "지역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재와 산업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핵융합 생태계를 구축해 '인공태양 일번지, 나주'로 도약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나주시는 최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동신대학교, 목포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5개 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핵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나주시청

영광, '모빌리티 전자파 잔향실' 시험평가 사업 선정

국비 67억원 확보...수소차·전기차 등 전방위적 시험 가능

영광군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미래 모빌리티 전자파 잔향실 시험평가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67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전자파 시험·인증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전자파 잔향실 1동 구축과 함께 시험평가 장비 10종을 추가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기존 전자파 반무향실이 완성차 및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제한적인 시험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새롭게 구축되는 전자파 잔향실은 부품단계부터 개발 중인 차량은 물론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까지 전방위적인 시험이 가능해

진다.

또 이번 사업은 자동차 분야를 넘어 가전, 통신, 산업기기, 건설기계, 방산장비 등 전 산업 분야로 시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자파 시험·인증의 종합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KG모빌리티, GMKorea 등 완성차 기업과 광주 지역 소재·부품·장비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적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전자파 시험소, 인증기관, 연구기관을 집적화해 국내 유일 전 산업 대응 전자파 연구벨트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영광군이 미래 모빌리티 전자파잔향실 시험평가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사진은 전자파 잔향실 모습. 사진제공=영광군청

단순한 시험 인프라 확충을 넘어, 영광군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시험·인증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대대산업단지를 서남권 전

자기파 연구벨트로 육성하고, 관련 공공기관과 컨설팅 기관 유치에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g98@gwangnam.co.kr

해남, 수산물 유통·가공 분야 106억 투입

송호리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등 인프라 강화

해남군이 지역 수산물의 유통·가공분야 19개 핵심사업에 대해 106억여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경쟁력 강화와 소득 향상에 나선다.

이를 통해 생산 중심의 어업 구조를 가공과 유통 중심으로 전환해 해남 수산물의 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우선 송지면 송호리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가 건립된다.

부지면적 7669㎡, 연면적 1338.58㎡ 규모의 수산물 물류 유통센터는 냉동·냉장 시설, 수조 등을 갖추고 활전복 수급과 보관, 판매, 분산 등의 기능을 갖춘 기반 시설로 조성된다.

총 20억원이 투입돼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전문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는 물론 유통 단계 축소로, 어민 소득향상과 더불어 소비자가 신선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물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수산물의 출하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총 25억원을 투입, 3개소의 저온 저장시설 인프라를 확충한



전북 선별 작업 모습. 사진제공=해남군청

다.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1개소를 포함한 대형 저온저장시설 2개소, 중형 저온저장 시설 1개소로 수산물 저장 용량을 확보해 어가들의 보관 편의를 대폭 향상한다.

해남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가공 시설 확충에도 집중 투자한다. 주요 사업으로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 3억 6000만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및 산지 가공시설 지원 17억원 등을 투입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위생적인 가공 여건을 조성한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구례, 관광굿즈·농특산물 판매장 '빙구레마켓' 개장

매주 주말·공휴일 운영...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역 관광 굿즈와 농특산물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판매장 '구례 빙구레마켓'이 문을 열었다.

구례군의 관문인 구례교 앞 '빙구레스테이션'에 등지를 둔 '빙구레마켓'은 지역 업체들의 판로 확대와 홍보를 돕기 위해

구례군이 직영으로 운영한다. 특히 입점 업체들에 저렴한 수수료 혜택을 제공해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군은 1차 공모를 통해 관광 굿즈 8개 업체와 농특산물 14개 업체를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했으며, 지난 주말 이틀간 실시

한 시범 운영 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등 뜨거운 호응을 확인했다.

이번 마켓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로컬 크리에이티브 육성사업'의 결실 중 하나다. 군은 지역 크리에이티브 양성과 관광 굿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로컬 플라마켓인 '공광'과 '빙구레마켓'을 연계 운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빙구레마켓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지역 로컬제품 판매와 함께 다양한 관광 정보도 제공해 구려여행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관광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빙구레마켓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잇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중 2차 공모를 통해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담양군 치매안심센터가 향촌노인종합복지관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치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담양군청

담양 '찾아가는 치매 관리 프로그램' 운영

향촌노인종합복지관 등 추진

담양군 치매안심센터가 향촌노인종합복지관과 손잡고 '찾아가는 치매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8일 담양군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인지 저하자와 정상군에 속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관리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오는 6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참여자의 인지기능 유지와 향상을 돕는 다양한 활동과 맞춤형 교육이 함께 이뤄진다.

특히 전문 인력이 직접 참여해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 인지 건강 증진에 효과적이다.

담양=이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4만명 몰린 목포 유달산 봄축제 성황

아스팔트 그림판·포토존 등 참여형 축제 관람객 호응

봄꽃이 절정을 이룬 목포 유달산에서 개최된 '2026 유달산 봄축제'가 시민과 관광객 4만여명이 찾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봄꽃과 함께하는 소풍'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개막식과 퍼레이드 중심의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축제로 운영되며 호응을 얻었다. 유달산 느림봄 걷기, 보물찾기, 노적봉기 등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몰리며 축제장 전반에 활기가 이어졌다.

노적봉 야외무대에서는 한 방송사의 예능프로그램 '서삼플레이'와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유달산 일주도로에서는 키링 만들기,



향수 공방 등 체험 프로그램과 아스팔트 그림판, 포토존 등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벚꽃과 개나리 등이 어우러진 유달산 일대 전경은 봄의 정취를 물씬 자아냈다. 봄꽃을 배경으로 한 스냅사진 촬영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돼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함께 소중한 봄 소풍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목포=이윤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진도 바닷길 열리니 '맛과 흥' 밀려온다

진도 8미 요리 향연·체류형 축제 17일 개막

올해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고군면 회동리 일원에서 열린다.

진도군은 올해 축제에 지역 먹거리와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더해 세대가 함께 즐기는 체류형 행사로 확대했다.

대표적인 관광작 참여형 콘텐츠가 '진도8미 쿠키쇼&베이킹쇼'다.

안우성 명장이 18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시연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밥 만들기 경연도 현장에서 함께 진행된다.

19일엔 제빵 경연대회가 열리는데, 가

족 단위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선 청소년을 위한 행사들이 풍성해 눈에 띈다.

총상금 600만원이 걸린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18일 진도를 칠마공원에서 열린다. 래퍼 낙삼과 댄서 제이블랙이 경연대회 축하 공연에 나서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경연대회 프로그램인 김밥 만들기·제빵 경연, 청소년 댄스대회 참가 신청은 진도군 관광문화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진도=고훈성 기자 city@gjdream.com

회소, 로컬기업 온라인 판로 지원 9000만원 투입...12월까지 운영

회소군은 전남도가 추진하는 '2026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로컬기업의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회소군 로컬기업 온라인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온라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2

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브랜드 스토리 맨토링 △제품 상세페이지 및 홍보영상 제작 △스크라우드 펀딩(해피빈 등) 입점 및 제품 런칭 마케팅 △온·오프라인 디지털 실무 교육 △전문가 1대1 컨설팅 등이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제작 콘텐츠를 '화순팜'과 연계,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통 마진 절감과 함께 수익이 지역 내 원물 구매 및 고용 확대에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회소=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